

삼성경제연구, 2011년 세계경제 안정적인 성장세 기대

중동사태, 동일본 대지진 등 불확실성 점차 증대

2011년 1분기에는 예기치 못한 일본 대지진과 중동사태 등으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 확립,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처 다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그 전략을 점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계경제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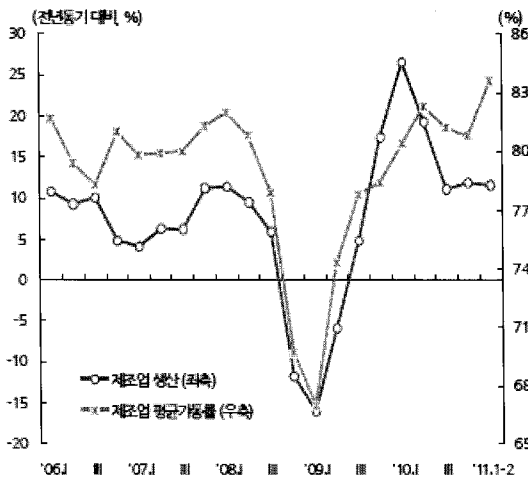
□ 최근 한국 경제의 흐름

▶ 실물경기는 양호한 회복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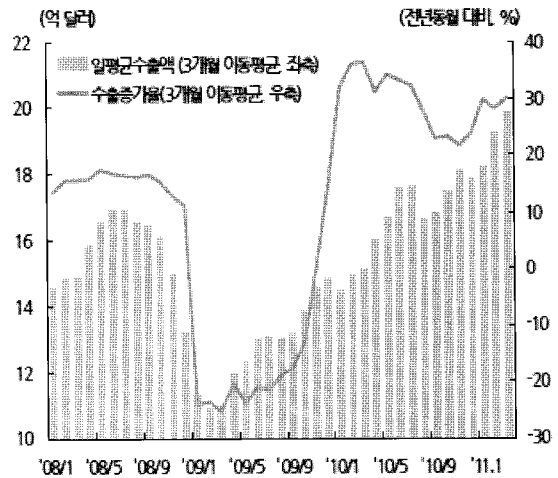
2011년 1~2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1.7% 증가하여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3.6%로 2010년 4분기(80.8%)보다 2.8% 상승하였다. 수출은 중동사태,

동일본 대지진 등 대외악재 속에서도 큰 폭으로 확대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3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8.9% 증가한 480.7억 달러로 월 기준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일 평균 수출액도 2011년 2월 20.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20억 달러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과 평균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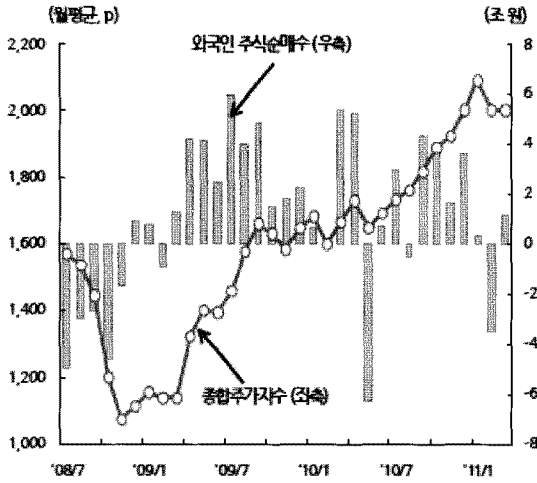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주가지수와 외국인 주식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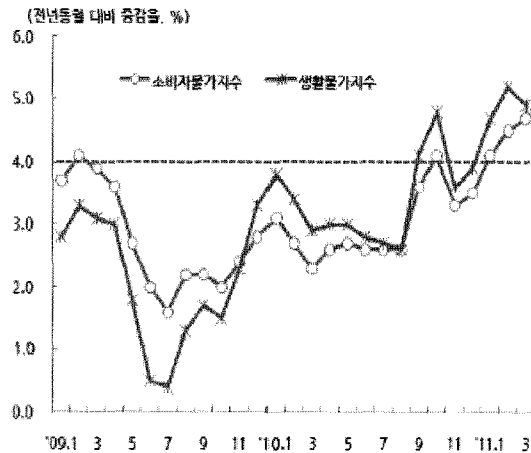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ECOS)

▶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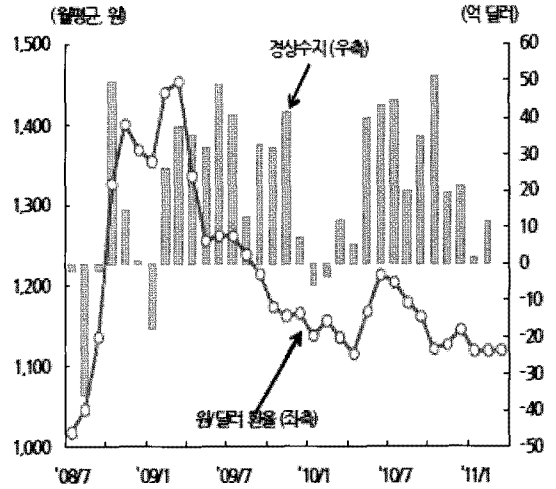
국내 금융시장은 2~3월에 중동정세 불안,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으나, 3월 이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주가는 대외악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경기회복세 지속,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하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원/달러 환율과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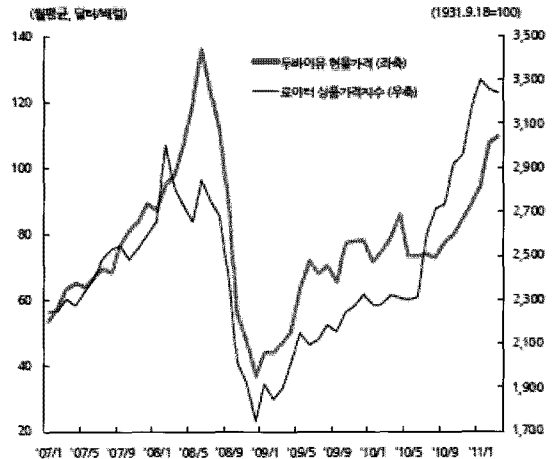


였다. 원/달러 환율도 중동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1100원대가 붕괴되는 등 원화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 국내물가 불안 심화, 대외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은 여전

2011년 들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상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 추이



회하는 등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경기 부진과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위험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글로벌 공급사슬 연쇄 충격 발생 우려도 상존한다.

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고성장세가 유지되며 4%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재정긴축이 시작되고, 신흥국에서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되면 2011년 세계경제의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1년 하반기로 갈수록 원자재 가격도 다소 안정되고 주요국의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약한 上低下高의 흐름이 될 전망이다.

□ 2011년 세계경제 전망

▶ 성장률은 4%로 둔화되지만 하반기에는 완만하게 회복

2011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기조가 지속

▶ 중동사태, 동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

〈 2011년 세계 경제 전망 〉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경제 (시장환율 기준)	-0.7 (-1.8)	5.0 (4.1)	4.8 (4.0)	4.9 (4.1)	3.9 (3.3)	4.1 (3.7)	4.0 (3.5)
선진국	-3.4	2.7	3.1	2.9	2.1	2.3	2.2
미국	-2.6	2.7	3.1	2.9	2.7	3.3	3.0
유로지역 (독일)	-4.1 (-4.7)	1.4 (3.0)	2.0 (4.0)	1.7 (3.5)	1.6 (2.8)	1.2 (2.0)	1.4 (2.4)
영국	-4.9	0.7	2.0	1.3	1.5	1.2	1.3
일본	-6.3	4.4	3.6	3.9	0.5	1.0	0.8
신흥국	2.3	7.5	6.7	7.1	5.8	6.0	5.9
중국	9.2	11.1	9.7	10.3	9.3	8.7	9.0
인도	6.7	8.7	8.5	8.6	7.8	8.2	8.0
브라질	-0.6	8.9	6.0	7.5	3.5	5.7	4.6
ASEAN 5	1.6	7.8	5.9	6.8	4.7	5.8	5.3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중동사태는 국제유가 상승, 물가불안 가중, 소비 투자 위축,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신흥국 자금 유출의 가속화를 유발하여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엔화가 초강세를 보인 후 약세로 전환되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과 함께 중간소재의 공급불안을 초래하였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이 확정되고 스페인 위기론이 부상하면서 2011년에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선진국: 미국이 하반기 회복을 견인

2011년 선진국 경제는 유로지역과 일본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1년 미국경제는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며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QE2가 종료된 후 긴축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2011년 유로지역 경제는 재정긴축과 물가불안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전망이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 2011년 일본경제의 성장률은 지진피해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0.4%~0.6% 하락한 0.8%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

▶ 신흥국: 인도, 브라질이 하반기 회복을 견인

2011년 신흥국 경제는 물가불안이 커지면서 긴축 기조가 강화되어 2010년(7.1%)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되나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2011년 중국경제는 성장정책 전환과 물가불안으로 인한 긴축기조 상화로 성장률이 2010년 대비 1.3%p 둔화된 9.0%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1년 인도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위축되어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0.6%p 둔화된 8.0%로 전망이 된다. 2011년 브라질 경제도 경기과열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인해 성장률이 전년 대비 2.9% 하락한 4.6%로 전망된다. 2011년 러시아 경제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 2011년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1배럴당 105달러로 상승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사태가 이집트, 리비아 등 주변 산유국으로 확산되며 석유 공급 불안이 확대되었다. 그로인해 2011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4.6% 상승한 1배럴당 105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 국제유가(두바이유) 전망 〉

(단위: 달러/배럴)

2010년	2011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연간
78	101	113	107	105	103	104	105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2011년 한국경제 전망

▶ 경제성장: 2011년 연간 성장률은 4.3% 예상

2011년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경제 성장률 역시 2010년의 6.2%에 비해 1.9%p 하락한 4.3%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회복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경제도 4%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

2011년 1분기까지는 2010년 하반기에 시작된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 되겠으나 2분기에는 중동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사태의 진정과 일본의 복구작업 본격화 등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는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4.7%로 상승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 2011년 민간소비 3.7%

2011년 민간소비는 물가불안,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 3.9% 증가하며 上低下高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고정투자: 2011년 설비투자 8.2%

2011년에 설비 확충이 크게 이루어진 데다 동일본 대지진과 MENA 사태등의 여파로 2011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

되고 기업이 투자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함에 따라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4.3% 증가할 전망이다.

▶ 고정투자: 2011년 건설투자 -0.1%

2011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주택시장의 회복세 미흡과 토목공사의 실적저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할 전망이다. 2011년 하반기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건설투자가 재개되고, 민간 부문의 주택건설 투자가 회복을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할 전망이다. 2011년 전체적으로는 재정여력 축소와 부동산 경기의 회복 지연, 건설업체의 자금난 등으로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 대외거래: 2011년 수출 17.2%

2011년 수출 증가율은 전년(2.8%)보다 낮아진 17.2%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단가의 흐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에 따라 수출 증가율은 上高下低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으로 2011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282억 달러)보다 줄어든 176억 달러로 전망된다.

▶ 물가: 2011년 소비자물가 4.1%

2011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해외발 공급충격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되어 전년동기 대비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반기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 상승과 거저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낮은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 고용: 2011년 실업률 3.6%

2011년은 성장 둔화와 공공 일자리 사업 축소 등으로 일자리 창출 폭이 2010년(32.3만 개) 보다 축소된 25만 개 내외로 예상이 된다. 2011년 실업률은 2010년보다 0.1%p 하락한 3.6%로 예상되며, 하반기 실업률은 3.4%로 상반기의 3.8%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 금리: 2011년 5.3%

2011년 시장금리(3년 만기 AA- 회사채수익률 기준)는 금리인상과 자금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2010년(평균 4.7%)보다 높은 연평균 5.3%로 예상이 된다. 하반기에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효과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투자 확대, 소비 증가 등으로 경제주체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4분기에는 시장금리가 5% 후반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2011년 연평균 환율 1060원

달러화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강세가 예상된다. 연중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2분기 ~ 3분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4분기에는 하락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적 시사점

▶ 경제정책 기조의 정상화 과정을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시행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탈출한 반면,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 기조의 정상화 과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가 2010년 6.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도 양호한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은 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재진입 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긴축기조로의 전환 과정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완화 - 긴축으로의 기조 전환은 유지하되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 경기친화적인 재정건전화를 시도 -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되 급격하고도 무리한 재정긴축은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계속 강화

▶ 원/달러 환율의 급락 가능성에 대비

정책 당국은 환율 급등락과 금융시장 불안은 초래하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향후 저환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부품, 소재 자립도 제고로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 -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산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 부품조달의 안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체질을 구축하여 유가 변동성을 극복 - MENA 사태의 장기화, 고유가 지속 등에 대응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을 강화한다.